

아기호랑이 발톱 매서웠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삼성전 3시간30분 혈투

임한용·류승현 신에 활약

오준혁 멀티안타 3타점에도

만루홈런 내주며 8-10 패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캠프에서 치른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8-10 패를 기록했다.

연습경기였지만 ‘신에 선수’들의 끈질긴 승부에 3시간30분이 훌쩍 넘을 정도로, 실전 같은 치열한 연습경기가 진행됐다.

1회 KIA 선발 박상욱이 먼저 실점을 했다. 1사에서 이영욱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한 박상욱이 우동균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나성용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2사 2·3루. 최원제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0-2가 됐다.

2회에도 1사1루에서 폭투로 진투를 허용한 박상욱이 김현곤에게 중전안타를 내주며 0-3이 됐다.

2회말 KIA가 삼성 선발 이케빈의 제구 난조 속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선두 타자로 선 임한용이 우측선상으로 공을 날리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박효일의 볼넷을 시작으로 이케빈이 2회에만 볼넷 3개를 기록했다.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만든 KIA는 류승현의 좌중간 안타로 3-3 동점을 이뤘다.

하지만 4회초 KIA 선발 박상욱이 네 번째 점수를 허용했다. 선두타자 성의준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연속 안타에 이어 몸에 맞는 볼로 만루 위기를 맞았다. 이어 폭투가 기록되면서 3-4가 됐다.

경기 중반은 대타로 나온 KIA 오준혁이 주도했다.

3-4로 뒤진 5회 무사 1·2루에서 타석에 선 대타 오준혁이 중전안타로 1타점을 올렸다. 이후 1사 1·3루 상황에서 임한용의 땅볼로 1점을 보탠 KIA는 6회말 공격에서 다시 득점기회를 잡았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오준혁이었다.

2사에서 박정우가 투수 옆 기습변트 안타로 분위기를 살린 뒤 김성민과 신병수의 연속 볼넷으로 2사 만루가 됐다. 두 번째 타석에 선 오준혁이 이번에는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7-4까지 점수를 벌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삼성 것이었다. KIA 남재현이 등판한 8회. 안타 두 개로 1사 1·2루가 됐고, 폭투가 나오면서 주



KIA 포수 이정훈이 17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4회초 이영욱의 유격수 땅볼 때 스타트를 끊은 3루주자 안주영을 아웃시키고 있다.

자들이 한 베이스씩 더 이동했다. 그리고 최원제의 좌전안타가 나오면서 7-6. 김현곤의 유격수 땅볼 때 김성민이 실책을 기록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한 KIA는

몸에 맞는 볼로 2사 만루의 위기에 몰렸

다. 이어 문선엽의 타구가 외야 담장을 넘으면서 만루홈런이 됐다.

7-10으로 승부가 뒤집힌 9회말 KIA가 바뀐 투수 김승현의 연속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만루까지 채웠지만 김성민의 밀

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만회하는데 그치면서 경기는 8-10 패로 끝났다.

KIA는 오는 22일에는 삼성의 홈구장으로 건너가 캠프 마지막 연습경기를 치른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하체 단련에 집중하겠다”

KIA 데뷔전 치른 임기영

KIA 투수로 처음 마운드에 선 임기영은 “만족스럽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임기영은 17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9회 마운드에 오르면서 ‘KIA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2014년 송은범의 FA 보상선수로 한화에서 KIA로 이적을 했지만, 지난 2년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느라 한 번도 KIA에서 공을 던진 적이 없다.

KIA에서의 첫 캠프, 첫 연습경기에 등장한 임기영은 7-10으로 뒤진 9회 등판해 네 타자를 상대해 20개의 공을 던졌다. 첫 타자를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임기영은 이성규의 2루수 직선타로 투아웃을 만들었다. 3루수 실책으로 2사에 주자를 한 명 내보냈지만 나원탁을 1루수 파울플라이로 잡으면서 이닝을 마무리했다. 최고 스피드는 141km를 기록했다.

임기영은 “스피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초구에 다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등 컨트롤이 좋았다. 첫 피칭이지만 괜찮다”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8월16일 이후 첫 피칭이라는 점에

서 더 의미가 있다.

임기영은 “오른쪽 등 근육이 찢어져서 그동안 공을 던지지 못했었다. 오랜만에 던지는 거라서 오늘 피칭이 더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룸메이트 김윤동이 발목 부상으로 조기 귀국을 한 게 아쉽지만 KIA에서의 첫 캠프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임기영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동이 빠져서 뭔가 허전하고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공을 던지기도 하고, 훈련이 힘들기는 하지만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다. 내가 장난기가 많고 그러는데 다 같이 재미있게 캠프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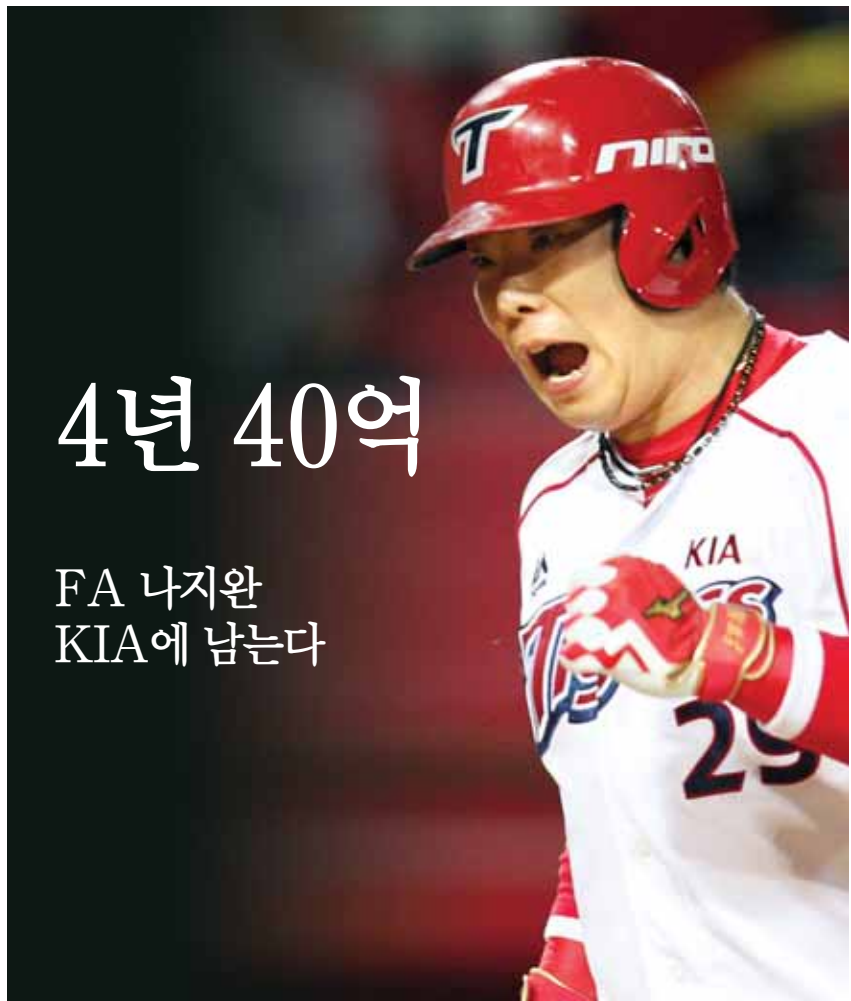
남은 캠프에서는 ‘하체’에 신경을 쓸 생각이다.

임기영은 “(손)영민이 형도 그렇고 주위에서 상체 위주로 공을 던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아직은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체 잡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남은 캠프를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KIA 임기영이 17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4년 40억

**FA 나지완
KIA에 남는다**

‘4번 타자’ 나지완이 KIA 타이거즈와 FA 계약을 체결했다.

KIA는 17일 오후 구단 사무실에서 나지완과 계약 기간 4년에 계약금 16억원 연봉 6억원 등 총 4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2008년 단국대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나지완은 올 시즌 118경기에 나와 타율 0.308(380타수 117안타), 90타점, 출루율 0.451를 기록했다. 또 25차례 담장을 넘기면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다. 나지완은 통산 기록은 145홈런, 타율 0.279, 출루율 0.389이다.

프고 2년차였던 2009년에는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터트리면서 팀의 10번째 우승을 일궈낸 KA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나지완은 계약을 마친 후 “나를 발탁해주고, 성장시켜준 KIA 타이거즈를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내년에도 KIA 타이거즈 선수로 뛸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지완은 “겨울 동안 몸을 착실히 만들어 올 해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어린이 야구교실 개최

26일 함평 챌린저스 필드

KIA 타이거즈가 ‘어린이 야구교실’을 개최한다.

어린이 팬들과 함께하는 이번 야구교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함평 KIA 챌린저스 필드 실내연습장과 보조구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캐치볼과 투구, 타격, 수비 훈련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훈·김상훈·김상훈 코치 등과 선수들이 강사로 나서 참가 어린이들에게 꼼꼼하게 기본기 교육을 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2016년 KIA 어린이 회원으로 참가비는 5만원이다.

참가자들은 오전 9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집결해 선수단 버스로 함평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야구 교실과 함께 부대 행사로 선수단과의 단체 사진 촬영, 티볼 게임 등도 진행된다. 참가한 어린이에게는 수료증 수여와 함께 KIA 유니폼 및 모자, 클러브, 유소년 가방이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참가 신청은 19일 오전 11시부터 구단 홈페이지 ‘멤버스 이벤트’(http://www.tigers.co.kr/tickets/ticket_membership.asp)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IA 홈페이지와 마케팅팀(070-7686-80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태환 亞수영선수권 200m 예선 3위로 결승행

박태환(27)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가볍게 물살을 가르며 자유형 200m 결승에 진출했다.

박태환은 17일 오전 일본 도쿄다쓰미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49초78을 기록해 전체 3위로 오후에 열린 결승 티켓을 따냈다.

1위는 일본의 츠바사 아마이(1분48초56), 2위는 가츠히로 마츠모토(1분48초78)가 각각 기록했다.

대회 첫 일정을 맞아 가볍게 컨디션

조절에 주력한 박태환은 오후 결승에서 국제대회 우승을 노린다.

박태환은 지난 8월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주 종목인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48초06으로 47명 가운데 29위로 탈락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전국체육대회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01로 1위를 차지해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1분44초80)에 근접해 기량 회복을 알렸다.

박태환은 18일 자유형 400m, 19일 자유형 100m와 1,500m, 20일 자유형 50m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女프로골프 대항전 ‘더퀸즈’ 한국팀 주장에 신지애

12월 2일부터 일본서

신지애(28)가 오는 12월 열리는 여자프로골프 팀 대항전 ‘더퀸즈’ 대회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선발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선수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신지애가 주장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지애는 한국 무대에서 20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1승,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13승을 올렸고, 이번 시즌에도 일본 무대

에서 맹활약하며 상금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지애는 “국가대항전에 참가할 때마다 막내였는데 어느덧 주장이 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다양한 투어 경험을 살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말했다.

12월 2일부터 사흘간 일본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 호주까지 4개 투어 선수들이 출전한다.

/연합뉴스